

# 청소년의 성, 에이즈예방교육의 문제점과 실태



##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제4회)

청소년과 성병/에이즈관련은 연재기획으로 5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향후 연재될 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요인

제2회: 청소년의 성의식

제3회: 한국 청소년의 에이즈감염 실태 및 예방

제5회: 외국의 청소년 성병/에이즈예방교육

“얼마 전에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기삽입은 안하고 살짝 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굴도 험쪽하고 감기도 3달째 앓는 거라고 하던 데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이 손에 붙었거든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겠죠?”

상담을 하면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질문들이다.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은 이렇게 부지하다.

이러한 상담이 심심치않게 자주 들어오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통로가 포르노와 또래집단을 통해서라는 경우가 반 이상을 넘는다는 점을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최근 2년 사이에 500만개이상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가 생겨나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부추기고,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라든지, 번색, 폰섹 등 무분별한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성병과 에이즈

**김영란** | 연세대학교 간호대 대학원 졸업  
서울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관장 역임  
현재 (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성교육센터 소장

의 확산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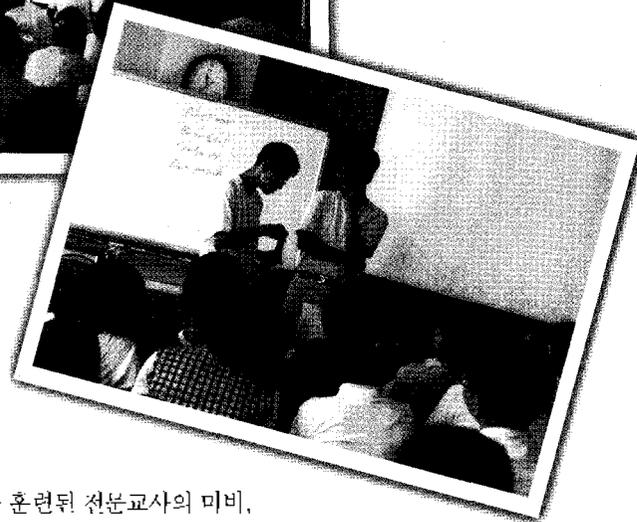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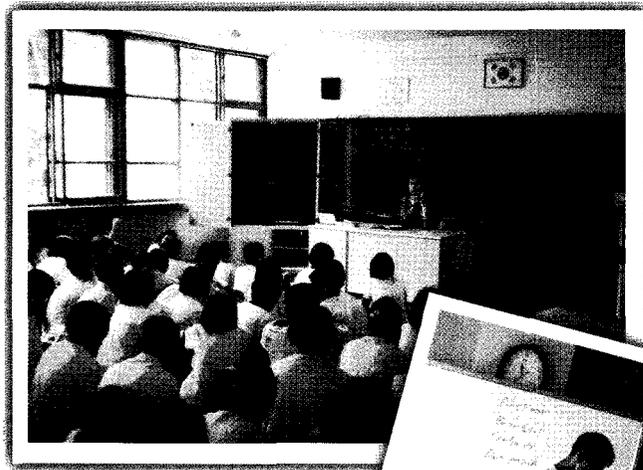
의사소통과 친밀감의 표현으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애기는 뒤로 밀려나고, 임회적인 쾌락의 추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성문화 추세에서 이제는 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에이즈 감염경로가 주로 성관계라는 사실에 비취볼 때 청소년의 충동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는 그만큼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청소년의 성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6%~34%에 이르기까지 성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어리고 있어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성경험 통계를 두고 청소년의 성적 문제를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맺게 되는 가이다. 서로간의 친밀감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을 없이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또는 성폭력에 가까운 강요로 인해 성관계가 일어나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특히 충동적인 성관계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조차 준비할 것을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낙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콘돔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가 나를 해픈 사람으로 볼까봐', '경험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오해할까봐' 라고 하는 준비된 성관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늘 수 있다.

준비된 성관계보다는 충동적이고 늘발적인 성관계를 더 미화하고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콘돔사용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적절한 자기 감정 표현, 성적 충동으로 일어난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방교육, 성적 결정에 대한 선택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교육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이즈 하면 희부병으로 비쩍 마른 임종 직전의 환자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에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에이즈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보다 정확한 의학적, 성적 지식의 전달과 체험적인 교육으로 누구와 언제, 어떻게 성적 접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올해는 성교육에 있어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인 해로 인정되고 있는 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속에 각 교과별로 혹은 과외활동을 통해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교육 지침서를 제작하여 청소년의 현실적인 성교육 요구들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부족

과 훈련된 전문교사의 미비,

성교육 시간과 신체 과목 담당 교사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절대적으로 성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성교육시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자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에서도 청소년,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의 현장성 있는 특강과 피임법의 직접 시연, 미혼부모 체험, 처녀막의 다른 이름짓기,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자기 주장 훈련, 사이버 성교육 체험관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긴 하지만 대량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보다 조직적인 체계와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성교육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성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사물놀이나 연극 등 특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하고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해결한 사례들이 발표된 바 있어 다양한 봉사활동, 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지원 및 보급으로 보다 포괄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